



連載 [10]

잃어버린 古代都市

X. 바벨탑은 실재했을까?

19세기 후반의 독일은 세계의 古考學的 발굴을 리드하는 地位에 있었다. 「독일 오리엔트 학회」가 설립된 것도 이 무렵이며 이 학회 최초의 사업이 바빌론의 발굴이었던 것이다.

발굴대의 隊長으로는 지금까지 그리스神殿이나 메소포타미아의 마르굴과 알 히파 遺構를 발굴한 경험을 가진 건축가 고르테와이가 선출되었다. 고르테와이 외에도 우수한 考古學者나 건축가들이 多數 참가해서 지금까지 영국이나 프랑스의 발굴대가 거의 實體를 파악하지 못한 古代 메소포타미아 最大의 바빌론王都의 유적을 建築史의인 입장에서 해명하여 참으로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 실제로 이 발굴대는 많은 成果들을 낳은 것이다. 예를 들면 新바빌로니아 帝國王 느부갓네잘 宮殿址, 에마크 小神殿, 마르도크의 에사기라 神殿, 그리고 이 에사기라 神殿과 이슈탈 門을 연결하는 장대한 行列道路의 발굴 등 일일이 예를 들 필요조차 없다.

그 중에서도 구약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의 수수께끼를 최종적으로 푸는 열쇠를 제공했다는 의미로서는, 환상적인 「바벨탑」 유적의 발견은 획기적인 대사건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유적은 바빌론의 主神 마르도크에게 바친 「에사기라」神殿 부속으로 건립된 지그라트(聖塔)이며 그 외에 크고 작은 건물과 中庭과 함께 神域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또 이 神域 안에서 新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잘, 앗시리아의 에자르해튼이나 앗술바니팔 등 諸王이 지그라트 建造의 취지를 證銘한 벽돌이 發見되어서 「에 테멘 안키」(하늘과 땅의 基礎가 되는 집)라고 불리우는 이 지그라트는, 실은 이 神域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사실도 明白하게 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新바빌로니아를 건설한 나보포라살이 황폐한 바빌론의 계층이 딸린 에 테멘 안키를 改築하여 頂點을 하늘처럼 만들어라 하는 神

託을 主 마르도크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또 느부갓네잘은 「나는 나의 主 마르도크께서 나의 手中에 넣어 주신 많은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에 테멘 안키 建造를 위해서 노동자로 일시켰노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바벨탑」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보르시파(비루스 이 니르드)나 둘 이리가르스(아카르크프)의 지그라트인 것이 아니라 文字 그대로 바벨, 즉 바빌론에 있었던 지그라트였다는 것이 考古學的으로 實證된 것이다.

이 「바벨탑」은 각 변이 90미터 이상이나 되는 巨大한 기초 위에 햇볕에 말린 벽돌을 心部로 해서 두께 15미터에 이르는 소성벽돌 층으로 다져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높이는 약 90미터이고 頂上으로 오르기 위해서 계단이 세군데 있으며 側面 兩階段의 높이는 약 30미터, 中央階段 높이는 약 40미터였다는 것이 계산에 의하여 밝혀졌다.

〈心象〉